

■ 2026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6. 7. 8.(수), 14:00~16:55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봉준, 구효서, 김지은, 장은수, 장이지, 정대훈

2026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은 겸업 또는 전업 문학 작가에게 일상 근처의 창작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필과 일상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문학창작실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작가가 신청하였다. 이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이번 심의는 신청 분야에서 공간 필요성 및 계획의 충실성(60%), 문학 활동 이력(30%), 기대효과(10%)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의는 심의위원 6인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1차로 분야별 사전검토를 진행하였고, 2차 현장 심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창작실이 필요한 이유와 그 공간에 관한 활용 계획의 충실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문학 작가에게 창작실이 필요한 이유가 객관적인 계획과 필요성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 모두에게 창작실을 제공할 수는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판단의 기준이 필요했다. 심의는 총 9개의 장르로 나누어 진행되 장르별 배분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장르별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르보다는 창작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을 배정하고자 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니라 현재 창작을 지속하고 있는 문학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를 진행하면서 문학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방식의 등단 제도 외에도 독립출판이나 POD 출판 등의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창작자의 장르 간 이동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가 창작 생태계의 긍정적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이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한 장르에서의 창작 활동과 지속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림이 포함된 에세이 작업 등이 그림책 분야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함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번역과 희곡 분야의 지원자가 많은 것도 인상적이다. 다만 번역의 경우에는 교양 및 일반 도서의 번역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번역이 중요한 기준이며, 희곡의 경우 공연 실적만이 아니라 희곡 창작이라는 문학적 활동이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사업의 신청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창작실이 필요한 작가가 많다는 것, 즉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가치가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두에게 창작실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이 치열하게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번 연도에는 창작실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참여가 높지는 않았다. 내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